

달콤한 유혹, 초콜릿



연운열의
푸드특독

초콜릿(Chocolate)이란 이름 자체는 멕시코 메스카 족이 카카오 빈과 고추로 만든 음료인 나후아틀어로 씹을한 물을 뜻하는 쇼콜라틀(Xocolatl)에서 유래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 유역과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강 유역으로 일컬어진다.

멕시코 원주민은 카카오의 씨앗인 카카오 빈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부르면서 음료나 약용으로 사용했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매스는 카카오 열매의 씨인 카카오빈에서 추출한 것으로, 그대로 섭취하면 먹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쓴다. 이런 이유에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보다 훨씬 더 쓴다.

초콜릿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초콜릿 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제과 공장에서는 전문 설비를 갖춰 놓고 제조하지만 핸드 메이드 초콜릿을 만들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서 제과 재료를 찾아서 재료를 구입한 후에 각각의 재료를

일정 비율대로 혼합하고 녹여서 본인이 원하는 틀(몰드)에 부어서 굳히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있다. 커피로 비유하면 원두를 볶아서 내려먹는 원두커피가 아닌 인스턴트 커피에 비유할 수 있다.

초콜릿은 카카오 빈에서 나오는 카카오 매스와 카카오버터, 그리고 설탕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다. 밀크 초콜릿은 여기에 우유가 첨가된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카카오버터 대신 식물성 유지 등의 대용유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중의 90% 이상의 초콜릿은 알칼리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알칼리 처리를 하게 되면 신맛과 카카오 본연의 향이 적어지고 쓴맛은 더 나게 된다. 알칼리 처리를 하는 이유는 수용성의 증대, 원료 색상의 조정 등이 있으며, 신맛 보다는 쓴맛이 설탕을 첨가했을 때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알칼리 처리를 거친 카카오닙스를 2차에 걸쳐 분쇄하면 진득진득한 카카오매스가 분리되고 끈적끈적한 카카오 케익이 남는다. 이 카카오 케익을 잘라서 분쇄하면 카카오 파우더가 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분류한 초콜릿 기

준은 다음과 같다. ▲초콜릿: 카카오고형분 30% 이상, 카카오버터 18% 이상, 무지방 카카오고형분 12% 이상인 초콜릿, 즉 카카오 성분이 가장 높은 초콜릿이라 할 수 있다. ▲밀크초콜릿: 카카오고형분 20% 이상, 무지방 카카오 고형분 2.5% 이상, 유고형분 12% 이상인 초콜릿. 우유가 첨가된 초콜릿이라 할 수 있다. ▲화이트 초콜릿: 카카오버터 20% 이상, 유고형분이 14% 이상인 초콜릿. 카카오 성분은 전혀 넣지 않은 제품이다. 색깔이 하얀 이유다. ▲고급 초콜릿: 고급 초콜릿의 기준은 카카오의 품종이다. 얼마나 좋은 카카오 품종을 쓰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준초콜릿: 카카오 버터 대신 팜유를 사용한 초콜릿이다. ▲커버춰 초콜릿: 코팅용 고급 초콜릿. 카카오버터 함유 30% 이상으로, 비싸고 윤기내기 힘들지만 코팅에 비해 맛이 좋다. ▲이미테이션초콜릿(코팅 초콜릿): 대량의 팜유에 아주 소량의 카카오 파우더만 섞어서 만든 초콜릿이다.

반려동물은 초콜릿에 함유된 테오브로민을 잘 분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과 콩팥에 부담이 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연운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부동산PF 잠재리스크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일 뿐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과연 그럴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체율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과

비교해 낮은 것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은 2022년말 2.05%에서 2023년 3분기말 5.56%로, 상호금융은 같은기간 0.09%→4.18%, 카드 및 캐피탈사는 2.39%→4.62%였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이 20.3%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리스크 전이도 금융기관 간 전이만 우려한 것이다. 지난해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은행은 37조원 증가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2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2조8000억원)를 제외하고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이 27조6000억원, 저축은행이 1조3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의 가계 대출문턱을 높여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중저신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상단기준 1만5000명 늘었다. 불법사금융이용금액도 약6800억~1조2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00억원 증가했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과 좋지 못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야를 넓혀 예상과 다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봐야 한다.

2금융권의 설립목적은 서민금융 지원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겠지만,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비해 설립 목적을 저버리고 있진 않은 지 돌아볼 때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8일 (음 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못 느끼는구나. 48년생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식탁보도 정리. 6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자. 72년생 보란 듯한 새 집을 마련하게 된다. 84년생 친하게 지낸 친구 병만만 가는 날.
- 소** 37년생 현실에 만족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49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면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61년생 마음이 청결하니 언제나 눈빛이 맑다. 73년생 신세 진 사람의 빚을 갚아야 하는 날. 85년생 이웃과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 호랑이** 38년생 많은 꿈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50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쉬지 말고 전진. 62년생 뒷사람을 책망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74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 86년생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길이다.
- 토끼** 39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져 주는 것도 좋다. 5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63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 75년생 머물기도 어렵고 떠나기도 어렵다. 87년생 이것도 저것도 벌리지 말 것.
- 말** 40년생 남의 도움을 받게 되나 시비도 생길 수 있다. 52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참아보도록. 64년생 남에게 선물 받는 것을 즐기지 않도록. 76년생 능력 이상의 일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88년생 공연히 잘잘못 비문장계를 조심.
- 뱀** 41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 53년생 계획은 원대하게 세우나 노력에 따르지 않는다. 65년생 공들인 탐은 실사리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77년생 구설수를 조심 특히 대화에 주의. 89년생 일월이 크면 이월이 작다.
- 말** 42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54년생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북서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78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90년생 가난할수록 기어잡 짓는다고 했는데.
- 양** 43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55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좌불안석. 67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유지가 최선. 79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91년생 흥두꺼로 소 물지 않도록.
- 원숭이** 44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56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날. 6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 80년생 인내하여 거래가 성사되니 감사. 92년생 가을바람의 세털처럼 허사가 되지 않도록.
- 닭** 4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해야 할 때이다. 57년생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한 하루. 69년생 현대는 금융 지식을 기르는 것도 기회이다. 81년생 기량비에 옷이 젖듯 하니 지출 자제. 93년생 무더위가 시작되니 건강을 조심.
- 개** 46년생 누군가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58년생 도화의 기운이 함유되다 현실을 직시. 70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본다. 82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94년생 문학에 관심을 둔다.
- 돼지** 47년생 말싸움하다가 힘이 빠진다. 59년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통설. 71년생 성하고 쇠됨은 누구에게나 온다. 83년생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호도하는 친구와 삼각관계 조심. 95년생 시절은 인생에 두 번 오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다문화 세상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연대감이 확고한 우리나라지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여 향후 30년 뒤에는 늙은 나라 노인국을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동남아나 기타 나라로부터 노동력을 위하여 유입되는 외국인들에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 등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주려 하는 이민정책을 펴려 한다. 결혼이 힘든 농촌이나 지방의 많은 남성이 동남아나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율도 높아져 단일민족을 운운할 상황도 아닌성싶다. 이럴 때 어떤 사고를 해야 할까? 다인종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는 거부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지만 심정적 이질감을 떨쳐버리기도 쉽지 않다.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도 어머니는 백인이지만 흑인 취급을 받는다. 평등사상으로 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백인과의 혼혈 출생인 흑인이 백인 취급을 받으려면 최소 6대가 지나야 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 그 6대 동안 계속 백인과의 출산이 전제되었을 때 얘기다. 카스트라는 신분 계급이 아직도 확인한 인도에서는 제일 상위 계급이 바라문이다. 그 바라문족이 순혈 바라문이라면 거슬러 7대까지 바라문족이어야 한다.

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가 행한 만행으로 단일민족으로서의 순혈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아들도 있다. 조선이 무너지면서 양반과 상민의 신분제도가 철폐되었는데도 이민족의 영입에는 부정적 시선이 많아 보인다. 미국도 필요로 이민정책을 폈듯이 우리나라도 그 시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으면서 순혈주의 단일민족이라는 의식 이면에는 폐쇄성이 있음을 느낀다. 주역으로 보자면 후천 세계가 시작된 지 한 세대가 지난다. 후천 세계는 기존의 질서가 뒤집히는 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8				7			
3				2	1	5	9
5	2	4			7		
1	6			2	3		
			8	5			
		7		6			2 5
		6		9	5	4	
4	9	5	1				7
			2				6

9	8	5	4	2	7	6	3
9	7	2	6	2	9	1	8
1	8	6	8	9	2	2	9
7	2	9	8	8	9	6	1
2	2	8	1	9	6	8	5
8	6	1	9	7	2	9	2
6	9	7	2	8	8	9	1
6	1	8	9	6	2	2	9
2	9	2	7	1	8	9	8

8	9	6	1	7	2	8	2	9
2	2	8	9	8	1	9	6	7
8	7	9	6	1	2	9	2	8
9	2	7	8	9	8	2	1	6
1	6	9	5	2	8	8	7	2
2	8	8	7	2	9	6	9	1
9	1	2	8	9	7	8	2	9
7	8	2	2	9	6	1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